

# 영험한 기운 가득... 나라와 마을의 안녕 기원한 '神山'

〈신산〉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 15 세시풍속

무등산은 고대 민족신앙의 뿌리였던 신산(神山)이었고, 제단을 차려 제사를 올리는 풍속이 이어졌다. 신라 때 국가에서 올리는 제를 대사·중사·소사로 구분했는데 무등산은 소사(小祀)를 모셨다. 고려 때에는 국제(國祭)를 모셨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지는 않고 봄·가을에 본읍(광주)에서 자체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처럼 무등산이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지면서 무등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시 풍속도 나타났다.

### 기우제·기설제 지내던 '천제단'

### 정월대보름 당산제 풍년 빌어

### 삼한시대부터 민족신앙 구심점

◇기우제 지낸 천제단=광주 지역민들이 기우제, 기설제, 기청제를 비롯한 국가안위 등을 위한 제를 올렸던 천제단은 현재 증심사에서 중머리재로 가는 중간 지점인 신촌고개 주변의 자그마한 봉우리 위에 흔적만 남아있다. 조상이 대를 이어 영장(靈場)을 수호해온 천제단은 삼한시대부터 무등산과 묘향산, 구월산 등 세 곳에만 있던 중요한 제단으로, 민족신앙의 구심점이 돼 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제단을 없앴고, 특히 이 일대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해 광주지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다행히 광주지역민들이 기금을 모아 광주청년회 이름으로 천제단 토지를 다시 매수했고, 이후 표지를 세웠다. 의재 허백련 선생은 지난 1974년 천제단을 단군신전을 모시는 민족의 제단으로 만들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공식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1965년 이래 매년 10월 3일이면 민간단체 중심으로 천제단에서 개천절 제전을 집전하고 있다.

또 신촌고개 사거리리를 지나 20m 정도 가면 넓은 터가 나오는데 바로 봉황대다. 원래는 봉황대인 이곳을 천제단에서 제사를 모시고 봉화를 올렸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맥 유지한 충효마을 당산제=충효마을에선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풍년기원과 마을사람들의 안녕을 빌기 위한 당산제를 지낸다. 충효마을에서 제를 지내는 곳은 큰 당산인 할아버지 당산과 작은 당산인 할머니 당산이다. 할아버지 당산은 마을 입구 수령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였으나, 오래전 고사하면서 그 옆으로 새로 가지를 친 나무가 대신하고 있다. 할머니 당산은 광주댐 상류에 세운 입석과 그 주위의 팽나무 세 그루였으나, 팽나무가 고사한 뒤 현재는 할아버지 당산과 합제를 지내고 있다.

제관은 정월 대보름 3~4일전에 마을 회의를 거쳐 선정해 왔으며, 제관으로는 제의에 직접 참여하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관을 비롯한 집사와 음식을 준비하는 화주를 뽑는다. 화주는 지켜야 할 금기사항도 까다롭다. 우선 대소변을 보면 반드시 목욕을 하고, 부부간에 각방을 써야 한다. 제의 음식을 만들 때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간이나 맛을 봐서도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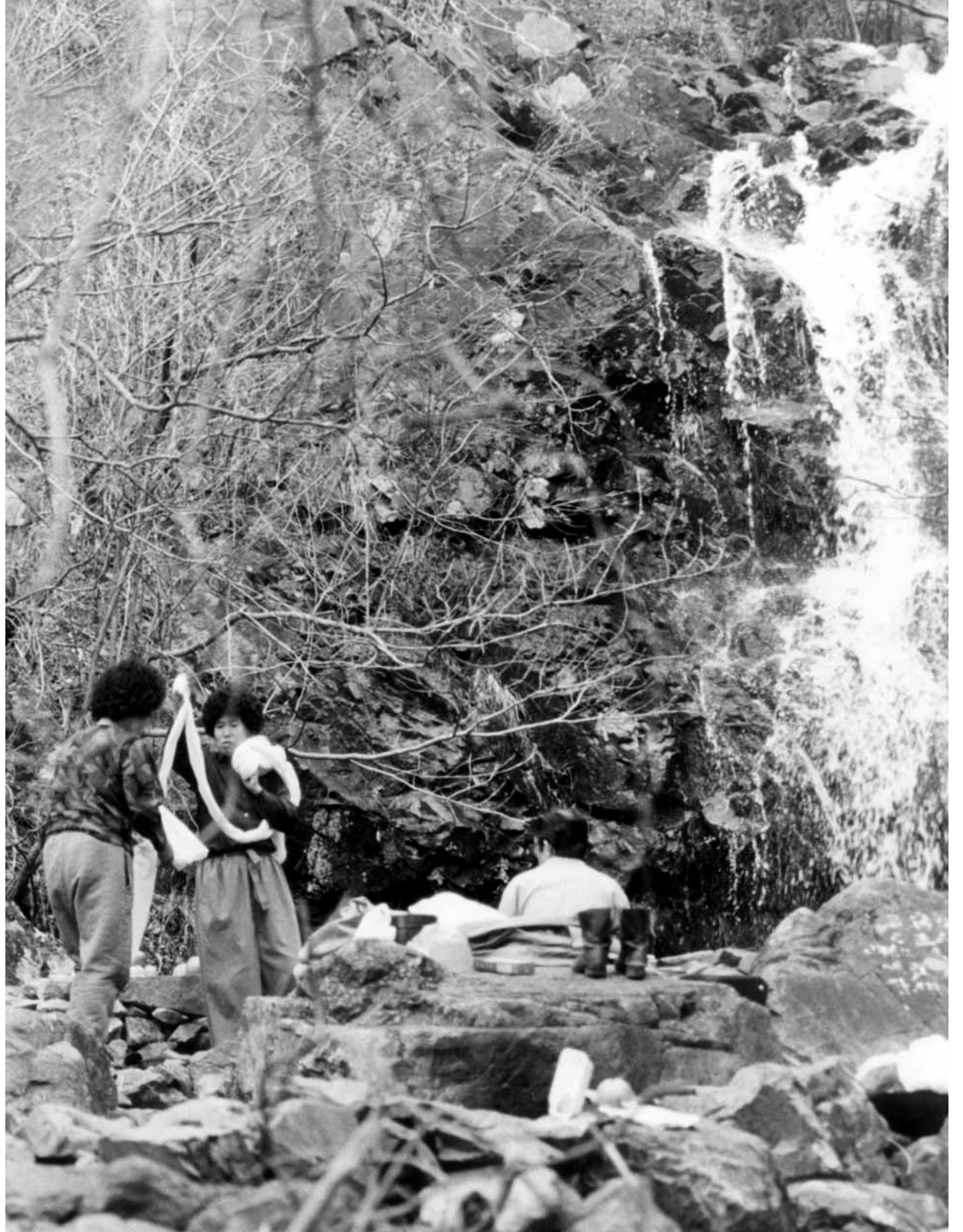
당산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효마을 당산제담과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충당하며, 900㎡ 정도되는 당산제담에서는 매년 한 가마니 정도의 쌀이 나온다고 한다. 이 쌀로 제를 모실 술과 떡을 빚는다. 또 제물은 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데, 장을 볼 때는 의복을 청결히 해야 하며 제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사고 값을 깎지 않는 게 전통이다. 예전에는 제물을 가슴에 품고 왔으나, 요즘은 차에 싣고 오는 게 일반적이다. 제의 시작은 밤 11시 20분께 농악으로 시작하는데 마을회관을 출발해 할아버지 당산 앞에서 한바퀴를 돌고 인사를 드린 후 마을 위쪽에 있는 샘으로 가 주위를 돌며 샘물을 한다. 농악대가 다시 마을회관에 도착하면 제물을 하나씩 머리에 이고 할아버지 당산으로 이동해 제물을 진설한다. 이후 밤 12시가 되면 본격적인 제가 시작되는데 유교식으로 감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유식, 음복 순서로 진행된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참여할 수 없었으나, 요즘은 여자들도 함께한다.

이 밖에 무등산 주변에 충효동 평촌당산제, 청옥동 화암당산제, 청옥동 등촌당산제, 청옥동 분토당산제, 지원동 용연당산제, 지원동 소태당산제, 학운동 성촌당산제 등이 있었으나, 6·25 한국전쟁 이후 거의 지내지 않고 있다.

◇영험한 힘, 무당산=신산인 무등산은 과거 무당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영험한 기운 때문에 토속신앙이기도 한 무당들의 구관이 자주 벌어졌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1990년대까지 증심사 뒤쪽 '무당골'에는 무당 움막이 곳곳에 들어서는 등 곳이 성행했다. 가끔 무등산에 산불이 나곤 했는데, 무당들의 필수품인 촛불이 화인으로 지목돼 무당 퇴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독지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1970년대 초반 무등산 증심사 뒤 '무당골'에서 굿을 하기 위해 준비중인 무당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나와 무등산 강진원 (유·스퀘어문화관 주임)

### 게으른 휴일 벌떡 일으킨 '마력의 산'



강진원씨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오른 서석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별한 취미가 없었던 나는 쉬는 날이면 거나한 술 한잔으로 숙취에 시달리곤 했다. 그러던 작년 8월 어느 날 주말에 늦잠을 자다 베란다로 나왔는데 청명한 무등산이 눈에 딱 차게 들어왔다. '한번 올라가 볼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등산이 싫었다. 온 가족이 바다를 선호하기에 알 기회가 적었다. 군 제대 후 친구들의 피임(?)에 빠져 몇 번 산을 오른 적은 있었지만, 혼자 결심으로 산을 오를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다. 어느날 집 베란다에서 매일 아침마다 보는 그 무등산이 이상하게 날 부르는 것 같았다. 당시 산행코스가 무등산이라는 공지를 보고 회사산악회(금호TM산악회)에 가입 원서를 낸 것도 딱 그때였다. 등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무등산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는 등 나름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다. 드디어 출발. 원효사에서 제철유적지~서석대~입석대~장물재~중머리재~증심사까지 가는 코스였는데, 경주마의 차안대를 끈 것 마냥 앞만 보고 숨을 헐떡거리며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고 올라 섰더니 어느새 서석대라는 표지석을 보게됐다.

천왕봉을 오를 수는 없었지만, 서석대를 처음으로 등정했다는 기쁨과 성취감만으로 충분했다. 이렇게 자발적인 첫 산행을 마치고 나니 그 동안 술로 술술 보내버렸던 휴일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무등산이 준 첫 산행을 잊지 못했다. 나는 휴일이면 동네 뒷동산부터 국립공원 산까지, 산이라는 산은 찾아 다니기 시작했다. 똑같은 기분을 찾기는 힘들지만, 정산에 오르면 산과 만났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내려와 다음 오름을 기대한다. 각 산마다 풍경과 웅장함,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한 다르다. 내가 산을 다니며 그러한 다름을 체험하고 그 산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돌아와 집 베란다 앞에 펼쳐진 무등산을 보면,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에 자연스레 미소가 그려진다. 이제 무등산도 명실공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서석대 입석대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될 유력한 후보이므로, 내가 먼저 보존하고 지켜 내 후손들까지 무등산에 올라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광주에 살고, 무등산이 곁에 있는 한 앞으로 나의 주말에 숙취만 더는 없을 것이다.

## 무등산 갤러리 임병성 작 '옛무등' (1988년) 종이 수묵채색(33 x 24cm)

옛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전신) 편집국 문화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신문 삽화, 만평 등을 그렸던 한국화가 고(故) 임병성 화백은 무등산과 독도를 많이 그린 작가다. 임 화백은 무등산의 자태는 그대로 두고 도시적 풍경을 배제했다. 예전 마을과 산수, 사람, 초가집의 풍경을 작품 속에 녹여내 보는 이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 특징이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경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 광송리도로

북고당 한약방

●생약도매  
●생약도매  
●생약도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